

## 총무원장 자승스님 임기 시작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일부 교역직 총무원을 새로 임명하는 등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임기개시 일인 지난 10월31일 신임 총무원 사서실장에 호법국장이었던 경우스님을 임명하는 첫 인사를 단행했다. 아울러 호법국장에 무관스님, 사서국장에 우봉스님, 태화산 전통 불교문화원 사무국장에 견진스님, 호법부 상임감찰에 해만스님과 법진스님을 기용했다. 조사과장에는 종원스님, 사서실 사서에는 도림스님이 등용됐다.

### ▶관련기사 2면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중앙종무기관 월례조화에 참석해 인사를 나눴다. 교역직 부실장 및 국장 스님, 일반직 종무원 순으로 삼배를 받은 총무원장 스님은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를 가장 민주적이고 불교적인 방식과 정신으로 치를 수 있도록 애써준 종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화답했다.

정관계 인사들의 예방도 잇따랐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계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 수석을 통해 취임을 축하하는 난(蘭)을 선물했다.

3일 예방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내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예정인 ‘방콕-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



지난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한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총무원장 취임 축하 난을 전달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 10월31일 첫 인사 단행...새해예산·현안 검토 청와대 박형준 수석 등 정·관계 인사도 만나

했다. 이밖에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조창희 종무실장도 찾아와 하례하고 불교문화 홍보를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이용훈 대법원장은 화환을 보내 취임을 축하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 스님은 불기 2554년 조계종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검토하

고, ‘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구역 해제’와 같은 중대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살피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한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새 집행부의 인선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월례 조회에서 “정기중앙총회가 끝날 때

까지 연장 근무해 달라는 요청을 수락해 준 부실장 스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해 한동안 집행부 부장급 인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5일 개최한 제182회 정기총회의 법정 회기는 오는 19일까지다(11월 3일 현재). 중앙총회 내 정책모임 및 교구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낙점할 전망이다. 반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중회를 가능한 한 빨리 마치고 다음 주 초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하리란 관측도 있다. 총무원 핵심 관계자는 “총무원장 스님은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각 부서별로 가장 유능하고 합리적인 인물이 발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ei@ibulgyo.com

## 사서실장에 경우스님 임명

신임 사서실장 경우스님(사진)은 지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자운스님을 계사로 1985년과 1989년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참담선원 재무를 거쳐 현재 순창 만일사 주지로 일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은사인

정대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사서국장에 천거되면서 중앙종무기관 소임을 시작했다. 이후 32대 집행부에서 감사국장을 거쳐 호법국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사서실장으로 영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0월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며 “전임 사서실장 심경스님과 잘 상의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격려했으며 이에 경우스님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장영섭 기자 fuei@ibulgyo.com

## “예일대가 잘못 은폐”

동국대, 학위확인절차 누락 증거 美 법원 제출

동국대가 신정아 씨의 학위 확인 책임을 두고 예일대와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 “예일대가 학위 확인 절차를 누락하고 조직적으로 잘못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한진수 동국대 경영부총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예일대 관계자들이 사건 초기부터 문제의 과장을 감지하고 우려하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조직적으로 대응해 온 사실을 증거조사(discovery) 절차에서 발견해 이 같은 내용을 소장에 포함하는 소장 변경 신청을 지난 10월 20일 접수했다”고 전했다.

동국대에 따르면 수잔 카니 예일대 법무실장이 2007년 7월 당시 오영교 동국대 총장이 신정아 학위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일대가 신 씨의 학위 확인을 해 준 팩스가 진짜일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에드워드 바나비 예일대학원 부원장보에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국대로부터 학위 확인 요청을 받은 예일대 미술사학과 학적 담당 사무관이 ‘이 사건이 법적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내부 직원에게 발송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동국대는 전했다.

동국대는 “2005년 동국대 측이 보낸 학위 확인 요청 우편의 결봉과 예일대가 동국대로 발송한 팩스 원본이 서마이스터 예일대학원 부원장의 서류 보관함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예일대가 사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동국대의 팩스가 위조되었다고 발표한 증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또 동국대는 예일대가 최근 뉴욕 타임스 등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없는 동국대 전 이사장의 특별교부세 지원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동국대는 지난 2007년 신정아 씨 학력 위조 사건 당시 신 씨 임용에 문제가 없었다며 예일대의 박사학위 확인 팩스를 공개했고, 당시 예일대는 동국대가 받은 팩스가 위조된 것이라고 답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동국대는 예일대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 코네티컷 지방법원에 5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임나정 기자 muse724@ibulgyo.com



지난 2일 동국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의연 경영관리실장(사진 오른쪽)이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고암 정병례의 새끼



日日は好日...  
날마다 좋은날!

### 社告

### ·불교신문 2010 신춘문예 공모

불교신문은 불교문학 신예작가 등용문인 ‘2010 불교신문 신춘문예’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불교문학에 관심 있는 신진 작가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기대합니다.

접수기간 : 2009년 11월16일(월)~12월16일(수)까지  
공모대상 : 불교문학에 관심이 많은 신진작가  
공모분야 :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시조·각 5편, 동화·원고지 30매 내외, 평론·원고지 60매 내외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작 선정  
상 금 : 단편소설 450만원, 동화/평론 각 350만원, 시/시조 250만원  
당선작 발표 : 2010년 1월 1일 불교신문 신년특집호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5층 전법회관 불교신문사 신춘문예담당  
문 의 : (02)730-4488(신춘문예 담당)

불 교 신 문 사

미리 보는 제1회 포교결집대회

3면

무술고수들이 골굴사에 모인 까닭은

9면

##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나한기도 제일도량

관악산 연 주 암

주 지 탄 무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85-1 전화 : (02)502-3234